

## ‘이용섭 10% 감산’ 최대변수로

민주 선관위 탈당 경력 페널티...광주시장 경선 판도 급변  
강기정 단일후보·양향자 여성 가산점 10% 효과 주목

다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흔전’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강기정·민형배·최영호 등 세 후보가 강기정으로 단일화되는데 이어 결선투표제가 도입되고, 이용섭 예비후보의 탈당 전력에 대한 10% 감산이 적용되면서 향후 경선 승패를 가능하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렸던 이 예비후보의 10% 감산 페널티는 1차 경선과 2차 경선(결선투표) 모두에 적용되면서 그동안의 ‘대세론’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아울러 이 후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 원명부 유출 수사결과도 향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경선 결과를 예측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용섭 후보는 ‘대세론 수성’을 위한 전략을 강구하고 있으며, 강기정 단일화 후보는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판단 아래 추격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광주시장 경선 후보를 강기정·양향자·이용섭 예비후보 3명으로 확정했다. 공천위는 또 이용섭 예비후보에 대해 ‘탈당 경력에 따른

10% 감산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10% 감산은 1·2차 경선 과정에서 이 예비후보가 받은 모든 총점의 10%를 깎아 반영한다는 규정이다. 만약 이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40%의 지지율을 얻게 된다면, 40%의 10%인 4%를 감산해 36%만 경선에 적용하게 된다. 최고위에서는 20% 감산도 논의됐지만, 이 후보의 대선 기여도 등을 감안해 10% 감산으로 최종 결정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을 했는데 거기에 반발해서 탈당한 것은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산을 했고, 이후 복당한 뒤 대선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10%만 감산했다”고 설명했다.

‘당의 요청에 의해 복당’한 만큼 과거 탈당 경력에 따른 감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이 예비후보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즉각 재의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 측은 “당시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것이 아니고, 당시 지도부의 부당한 전략공천으로 사실상 탈당을 강요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10% 감산은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선 과정에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특히 후보 단일화 등으로 판세가 유동적으로 변해왔다. 1차 경선과 2차 경선에서 각각 10% 감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예비후보의 대세론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효과에 힘입어 지지율 상승이 예상되고, 양향자 예비후보 역시 경선과정에서 여성 가산점 10%를 적용받는다는 점도 이 예비후보의 대세론을 흔들고 있다. 양 예비후보는 25%의 여성가산점을 받아야 하지만, 광주 서구를 지역위원장을 지냈다는 점을 감안, 가산점이 10%로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늦어진 경선 일정도 광주시장 경선전의 변수로 꼽힌다. 다른 광역단체장 경선에 비해 일정이 늦어지면서 이 예비후보를 매섭게 추격하고 있는 강 예비후보와 양 예비후보가 지지세 확산에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이 예비후보 측은 경선일까지 그동안 굳혀온 ‘대세론’ 수성을 통해 1차 경선에서 과반을 획득, 경선을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기정 예비후보는 단일화 시너지 효과를 경선일까지 최대한 살려나가는 등 지지세 확산에 나설 예정이며, 양향자 예비후보도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는 등 추진력 있는 여성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굳히는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개막 2018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이 7일 오후 금남로에서 개막했다. 개막공연으로 타악 그룹인 ‘라커퍼션’이 흥겨운 리듬의 공연을 펼치고 있다. 프린지페스티벌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7시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원에서 펼쳐진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박근혜 사법단죄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2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날까지도 법정에서 불복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

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나이 만 66세에서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24년 후인 만 90세까지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재판과는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공천 개입 혐의의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이보다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 전남지사 경선 ‘문재인 마케팅’ 허용 희비

김영록·신정훈 후보 환영...장만채 후보는 반발

다불어민주당 경선에 ‘문재인 마케팅’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전남지사 경선 후보 간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인연이 없는 장만채 후보는 상대적인 불이익이 예상된다.

8일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김영록·신정훈 후보 측은 환영한데 반해 장 후보 측은 반발했다. 김영록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6일 논평에서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장·차관을 했는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장·차관을 했는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유권자에게 이를 정확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며 “최고위에서 제대된 결정을 내린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다. 김 후보는 주요 이력으로서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헛라인’을 자처한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출신인 신정훈 예비후보도 환영했다. 신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문 대

통령의 정책 공약을 함께 만들었고,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광주·전남 현안을 두루 챙겼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출마 선언을 할때부터 ‘문재인 마케팅’을 펼쳤다.

반면, 장만채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전남을 이끌 전남도지사는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공약을 보고 전남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골치 아픈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도가 높다면 후보들이 정책 대결보다 ‘문재인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권자들이 후보 면면을 두루 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법무법인 이우스 영입인사

저희 법무법인 이우스는 이번에 백승호 변호사(제41대 경찰대학장)를 대표변호사로, 장은백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를 구성원변호사로 새로 영입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법무법인 이우스는 상생과 공익을 위해 더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범죄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변호사 임선숙 이병주**  
변호사 오세욱 서예련 고영석  
강성두 김정호 장은백  
김석운 봉세환  
공인회계사 정현석

**◇백승호 대표변호사**  
· 광주금호고등학교 졸업  
· 전남대 법과대학 졸업  
· 제3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3기)  
· 강진, 수원중부, 관악경찰서장  
· 경찰청 법무과장, 수사과장(총경)  
· 경기지방경찰청 제1차장(치안감)  
· 전남지방경찰청장(치안감)  
· 경찰대학장(치안정감)

**◇장은백 변호사**  
· 광주실례시외고,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4회)  
· 서울주세무서 국제심사위원  
· 순천향대학교 과학수사대학원 겸임교수  
·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지원 변호사  
· 전남대 법학교육실 연구원(전)

■ 광주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9 이우스빌딩 대표전화 062-223-1600 팩스 062-225-7800  
■ 서울사무소 : 서울 서초구 법원리길 1, 501호(서초동, 서호빌딩) 대표전화 02-637-4496 팩스 02-693-5006

**HNT 하나투어**
**하나팩**

## 4월 30일부터 무안 → 다낭·방콕·오사가 하늘길이 활짝!

### 제주항공 정규편 신규 취항! 하나투어에서 준비한 취항 특가 지금 떠나기 딱 좋습니다!

**무안 ↔ 방콕 주4회 운항**  
3박5일(수/목) 4박6일(토/일)

AAPF01  
**방콕/파타야 5일, 6일**

3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40 / 선택경비 있음  
#산호선 즐기 #다양한 특식

**무안 ↔ 다낭 주2회 운항**  
3박4일(토) 4박5일(화)

AVPF13  
**다낭/호이안/후에 4일, 5일**

4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40 / 선택경비 있음  
#휴양과 관광 오감만족 #힐링여행지

**무안 ↔ 오사카 주8회 운항**  
3박4일(월/목/금/일) 2박3일(수/금)

JOPF01  
**오사카/교토/나라 3일, 4일**

64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없음 / 선택경비 있음  
#쇼핑,관광,먹거리 천국 #다양한 특식

인신공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 [여행상품 가격표해설] 유품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원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에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인. ■ [유품할증료] 유품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급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가제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r.com 참조) ■ 선택경비 선택경비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제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r.com 참조) ■ [비대인]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바랍니다. ■ 관광사양서 등록번호 제2004-0903-6 (종로구청) 서울구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장착/물품장수 1kg, 157-1233ARS 안내번호 020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품할증료와 제세과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경비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r.com) 참조.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참수 권고 ●여행 금지 | 본 상품은 프리미엄로드샵(광주충장점)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에 담당합니다.